

KUCO 활동보고서(1)

활 동 명	2024 KUCO 멘토링 프로그램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KUCO
활동시간	2024.03.02~2024.06.30	비고	교육 프로그램
활동목적	1. 경희대학교 학우들의 클래식 입문 보조 2.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클래식 악기 연주의 즐거움 전파 및 취미생활 공유 3. 오케스트라 내 신입부원 확보		
활동내용 및 소감	<p> ■ 장소 : 학생회관 702호 KUCO 동아리실 ■ 활동내용 : 신입부원들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 클래식의 세계에 새로 입문하는 부원들을 보조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이다. 악기에 대한 이해가 넓은 단원이 멘토를, 신입 또는 오케스트라에 입문하는 단원이 멘티를 하여 1대1 과외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학기중에 실시하는만큼 참여자 모두 공강 또는 방과후/주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 소감 : 오케스트라는 합주를 기본골자로 하는만큼, 연주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실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성인 이후부터는 레슨비가 시간당 약 6~10만 원 이상으로 굉장히 고가인 관계로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실력은 확보해야하나 배울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으로 등장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실력이 출중한 단원들에게는 가르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연주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멘티는 무료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악기를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p> <p> 2024 KUCO 멘토링에는 총원 62명, 31팀이 참여하였다. 다양한 학과, 학년의 경희대학교 학우들이 참여하였고, 이들 중 절반 이상인 약 20명 정도가 이어지는 연주회들('2024 KUCO 작은연주회', '2024 설국교류전', 'KUCO 제42회 정기연주회')등에 참여하였다. 클래식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며 숨가쁜 현대사회에서 클래식이라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모두에게 기억되지 않았을까 한다. </p> <p> ■ 기타 : 악기가 없는 단원들이 많아 멘토링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경희대학교 및 중앙동아리연합회가 제공한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으로 틈틈이 악기를 구비한 덕에 올 2024년도 무사히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악기와 장비 구매에 도움을 준 학교 및 운영진 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p>		

활동사진
(3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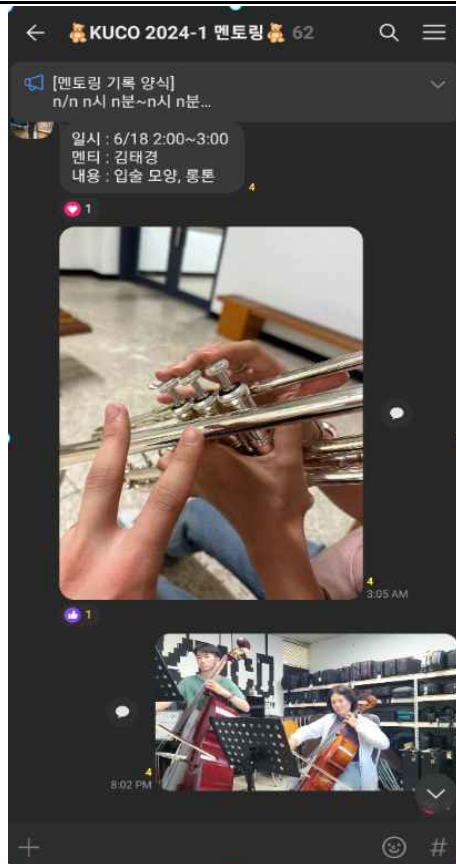


사진1)

멘토링 프로그램은 옆 사진과 같은 톡방에 레슨 내용을 인증하는 식으로 기록하였다. 캡처한다면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나오지만 대략적인 3매의 사진만을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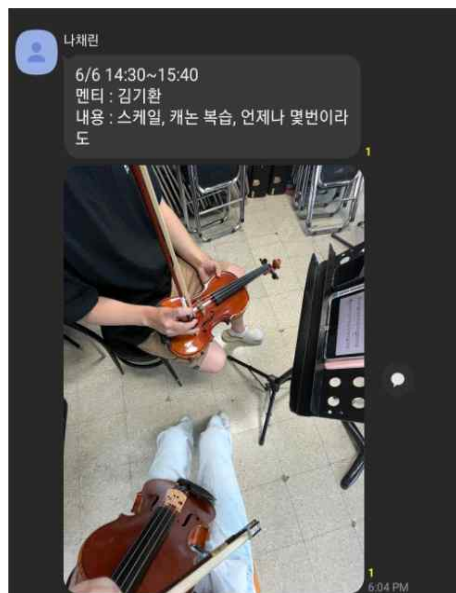


사진2) 바이올린 멘토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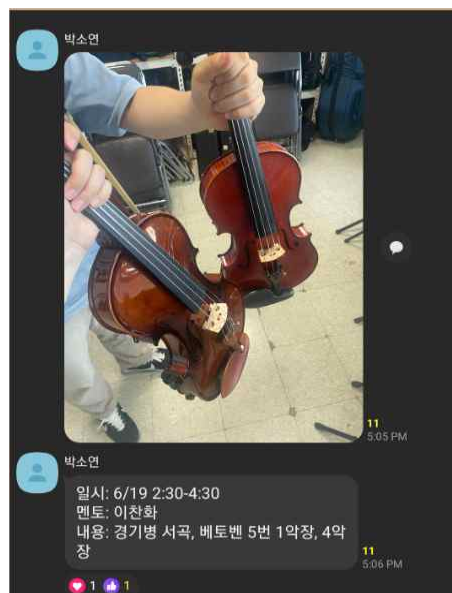


사진3) 바이올린 멘토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신형규

(11)

KUCO 활동보고서(2)

활 동 명	2024 KUCO 작은연주회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KUCO
활동시간	2024.05.24.18:30~19:10	비고	공연 프로그램
활동목적	1. 클래식 대중화 2. 경희대학교 학우 및 지역주민 전용 공연 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KUCO 홍보		
활동내용 및 소감	<p> ■ 장소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예술디자인대학 A&D홀 ■ 활동내용 : 전형적인 교향곡이 아닌 대중적인 OST 5선을 연주하였다.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클래식 악기에 입혀져 있는 낯선 '벽'을 부수고, 친숙한 곡들의 연주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자 한 점이 크다. 연주곡은 아래와 같다. </p> <p style="text-align: center;">-1부-</p> <p style="text-align: center;">When you wish upon a star(피노키오 ost) 카마도 탄지로의 노래(귀멸의 칼날 ost)</p> <p style="text-align: center;">-2부-</p> <p style="text-align: center;">Cygnus Garden(메이플스토리 ost) When the morning comes(메이플스토리 ost)</p> <p style="text-align: center;">-앵콜-</p> <p style="text-align: center;">UEFA(Champions League ost)</p> <p> ■ 소감 : 이번 작은연주회는 순수하게 KUCO의 힘으로만 만들어낸 공연이었다. 이전 연주회들은 교향곡 특성상 동아리가 구비할 수 없는 악기(바순, 잉글리쉬 호른, 하프)가 많았다. 이 경우, 외부에서 해당 악기들을 연주할 수 있는 프로 객원을 불러야 해서 '쿠코만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는 애매했다. 그러나 이번 곡들은 KUCO 소속 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 두 명이 힘을 합쳐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작곡을 진행하였다. 지휘 역시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외부 프로 지휘자를 컨택하여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이번 연주회에서는 작곡을 맡은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 한 명이 지휘까지 진행하였다. 본인이 작곡을 맡은만큼, 쿠코를 위해 쉽게 만든 부분들을 단원들에게 설명해줌으로써 신입 부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 새롭게 입문하는 친구들에게는 재미와 자신감을, 대중들에게는 즐거움을 준 시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클래식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교향곡, 협주곡만을 연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모든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다. </p> <p> ■ 기타 : 학기 중 공연으로, 단원들 모두 4-5월 주 2회씩 학생회관 연습실에 모여 연습을 진행하였다. 당일 약 200명에 해당하는 관객들이 방문하였다. 예술디자인대학 행정실 정유리 무대감독님의 모니터링 덕분에 별도의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p>		



사진1) 2024 KUCO 작은연주회 포스터



사진2) 2024 KUCO 작은연주회 연습



사진2) 2024 KUCO 작은연주회 공연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신형규 (1)

활동사진
(3매 이상)

KUCO 활동보고서(3)

활 동 명	2024 설국교류전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KUCO
활동시간	2024.05.28.21:00~21:20	비고	공연 프로그램
활동목적	1. 클래식의 대중화 2.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와의 화합 공연 3.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KUCO 홍보		
활동내용 및 소감	<p> ■ 장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크라운관 ■ 활동내용 : 서울캠퍼스 오케스트라 중앙동아리 MDOP와의 합동 공연. 작은연주회와 마찬가지로 관객들로 하여금 클래식 악기에 입혀져 있는 낯선 '벽'을 부수고, 친숙한 곡들의 연주를 통해 즐거움을 주고자 한 점이 크다. 연주곡은 아래와 같다. -설국교류전- When you wish upon a star(피노키오 ost) 지브리 메들리(지브리 스튜디오 ost) </p> <p> ■ 소감 : 러닝타임은 불과 11분 정도로 굉장히 짧았다. 그러나 이 공연에 쿠코를 참가하게 한 유인은 크게 두 가지다. 이번 설국교류전은 직전 공연의 '작은연주회'와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다. 순수하게 KUCO와 MDOP만이 힘을 합쳐 만들었다는 부분이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의 경우에는 KUCO 측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이, 지브리 메들리의 경우에는 음악대학 기악과 학생이 작곡하였다. 지휘 역시 작곡 담당 쿠코 학생이 하게 됨으로써 그 독립성을 분명히 하였다. </p> <p> 나아가 각 오케스트라가 부족한 파트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 MDOP는 첼로가 부족/관파트가 풍성한 반면, KUCO는 첼로 파트가 과잉/관파트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설국교류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갈등 없는 편성을 통해 국제캠퍼스-서울캠퍼스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p> <p> 이러한 두 가지 요인 및 국제캠퍼스 중앙동아리연합회와 서울캠퍼스 총동아리연합회의 원활한 행사 진행은 쿠코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줬다고 확신한다. </p> <p> ■ 기타 : 학기 중 공연으로, 국제캠퍼스 KUCO와 서울캠퍼스 MDOP가 각각의 자리에서 개별적인 연습을 진행한 후 전날 리허설을 진행하였다. 축제나 다전공 과정이 아닌 이상 국제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 학우들과 교류할 일이 적다. 이번 기회에 MDOP 동방 방문, 합동 공연 진행 등을 통해 다양한 동아리의 시스템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활동사진
(3매 이상)



사진1) 2024 설국교류전 포스터



사진2) 2024 설국교류전 연습



사진3) 2024 설국교류전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신형규

(11)

KUCO 활동보고서(4)

활 동 명	KUCO 제42회 정기연주회 연습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KUCO
활동시간	2024.07.01~	비고	공연 프로그램
활동목적	1. 교향곡 연주를 통한 클래식의 아름다움 전파 2.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KUCO 홍보		
활동내용 및 소감	<p> ■ 장소 : 경희대학교 학생회관 연습실1(현파트), 702호(관파트) ■ 활동내용 : KUCO의 주요행사인 정기연주회를 대비한 연습이다. 2개월의 기간동안 계획된 정기연주회 연습에는 매회 약 30~35명의 단원들이 참여한다. 연습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정기연주회 연습시간표- 매주 월/수/금 14:00~17:00(3h) : 개인연습/파트단위 연습 17:00~18:00(1h) : 저녁식사 18:00~21:00(3h) : 합주 </p> <p> 대인원이 사용하는만큼 연습실1을 제외하고는 합주가 힘들었다.(소극장은 조명이 어두워 악보리딩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에서는 깨뮤, 컬스라, 비엠비 운영진 학생들과 중앙동아리연합회 시설팀의 도움을 받아 일정을 조율, 합주를 진행했다. </p> <p> ■ 소감 : 하루 6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엄청난 연습량이다. 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내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연주회 참여 총원 47명 중 30명대에 달하는 단원들이 꾸준히 나와 자신들의 악기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분은 운영진으로써 기특하고 몽클할 수밖에 없다. </p> <p> 경희대 학우들 모두가 학기 중에는 학업이라는 챗바퀴 아래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황금같은 방학을 단순히 자신의 휴식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미생활인 클래식 음악에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고되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지금의 노력과 배움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날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p> <p> ■ 기타 : 합주 때에는 외부 프로 지휘자가 방문하여 단원들을 가르치신다. 현재 지휘자는 대한민국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2nd violin 수석으로, 각종 대학에 출강하시는 '전재성' 선생님이다. </p>		
활동사진			



※ 지류차량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경 즉시 여운함에 공지하겠습니다.

(4)

KUCO 활동보고서(5)

활동명	전재성 바이올린 독주회 견학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KUCO
활동시간	2024.05.14.19:30	비고	관람 프로그램
활동목적	1. 프로 연주자의 바이올린 연주 관람을 통한 전문 확장 2. 미래 바이올린 꿈나무 단원들에게 배움의 기회 제공		
활동내용 및 소감	<p> ■ 장소 :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 활동내용 : KUCO 제42회 정기연주회 지휘를 맡아주시는 전재성 선생님의 공연. 전재성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3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2nd violin 수석으로, 각종 대학에 출강하신다. 특히나 해당 연주자는 강렬한 보잉과 부드러운 스케일로 세간에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쿠코 내 많은 바이올린 단원들의 목표이기도 하다.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연주를 보고 선율을 들으며 자신의 수준을 점검했다. ■ 소감 : '정점에 오른 사람의 연주는 어떠할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단원 총 16명이 방문하였다. 약 1시간 10분가량 이어진 독주회는 단원들로 하여금 경외감을 자아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복잡한 선율을 명확하고도 정확한 힘으로 짚어냄으로써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재해석함과 동시에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작성자인 단장 역시 해당 독주회에 방문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악기 연주란 말그대로 굿기/불기의 행위에 그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독주회를 통해 이전의 단순한 행위들을 재점검하게 되었고, 검토를 통해 실력향상의 길에 올라설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p>		
활동사진			

(3매 이상)



사진1,2) 전재성 선생님 독주회 팸플릿



사진3) KUCO 단원들과의 사진 촬영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신형규

(4)

KUCO 활동보고서(6)

활 동 명	정기연주회 포스터&팜플렛 제작		
동아리 분과	연행분과	동아리명	KUCO
활동시간	2024.05.24.~	비고	창작 프로그램
활동목적	1. 전공자-비전공자 간의 디자인 멘토링 2. KUCO 내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창의적이고 적합한 책자 완성 3. 연주회비 절약		
활동내용 및 소감	<p> ■ 활동내용 : 연주회를 대비한 단원 모집에는 파급력 있는 쇼가 필요하다. 포스터는 그런 의미에서 최적의 홍보물이다. 제42회 정기연주회의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토벤의 5번 교향곡-운명을 연주한다. 실력과 동시에 뜻이 있는 단원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기 위해 포스터에 강렬한 상반되는 삽화를 삽입하였다. 이때, 도예학과 출신으로 디자인에 뛰어난 감각이 있는 전공자 단원의 피드백을 받으며 제작하였다. </p> <p> 본공연인 8월 30일을 대비하여 곡과 참여자들에 대한 소개글을 써넣은 팜플렛 또한 제작해야한다. 기존의 오케스트라 팜플렛들은 전형적인 책자 구조로, 굉장히 무미건조한 형태였다. 물론 '정보전달'이라는 본목적은 달성하였지만, 그것은 팜플렛이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은 무시한 형태이다. '진정으로 추억에 남길 수 있는'이라는 프로젝트 부제와 함께, 전공자 단원의 전두지휘 하에 창의적으로 도안을 제작하고 있다. </p> <p> ■ 소감 : 타 오케스트라들이 그렇듯, 기존에는 쿠코 역시 포스터와 팜플렛을 외부업체에 맡겼었다. 이러한 외주는 제작자와 운영진 간의 의사표현이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한다. 소모되는 비용 역시 상당하다. 나아가 제작자라는 위치는 결국 뛰어난 경희대학교 디자인 전공의 학생들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실용적인 경험을 쌓아보게 하는 것을 주목표로 하였다. </p> <p> 디자인에 관심이 많은 비전공자는 전공자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 전공자 역시 단순히 수업에서 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공모전 형식으로 참여함으로써 사회로 그 분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p>		

활동사진
(3매 이상)



사진1) 전공자 학생과의 논의. 앞에 세운 다양한 작품들을 참고하여 추후 제작할 포스터와 팸플릿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사진2) 피드백을 통해
제작된 포스터(흑/백)



사진3) 현재 제작중인 팸플릿
디자인. 마지막 페이지를
제외한 모든 가운데를 뚫어
중심그림이 관통할 수 있게
제작하고 있다.

동아리활동과 관련하여 상기 결과보고서를 확인합니다.

※본 활동보고서가 '활동우수지원금' 지급에 평가 기준으로 활용됨에 동의합니다.

대표학생 : 신형규 (11)